



» 김용환 그렇다면 이번 소송에 대해 상대측으로부터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혹시 문제 해결을 위해 생각하고 있는 대안은 있나?

» 김봉준 소송 상대는 셋으로, 뉴저지주 일본계 학교, 뉴저지주 교육부, 그리고 뉴저지주 오클랜드 교육위원회다. 교육부에서는 응대를 했고, 교육위원회에서도 자문변호사 되는 사람에게 연락이 왔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일본계 학교 측 변호를 미국에서도 열 손가락 안에 드는 대형 로펌이 맡은 것이다. 학부모들이 대단한 부유층도 아니고, 전교생이 200명이 채 안 되는 작은 학교에서 그렇게 비싼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건 생각해 볼 문제다.

사실 우리 요청은 독도를 이슈로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하지 말자는 것이다. 교과서를 폐기하고 다시 만드는 데 비용이 든다면 그저 그 부분을 스티커로 붙여서 안 보이게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가볍게 접근한 것이다. 그런데 대형 로펌이 등장해 연기를 신청하며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하니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다.

» 김용환 현재 소송 진행과 관련해 그 경과가 궁금하다. 미국은 소송비용이 상당히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용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이번 소송과 관련해 외부 지원이 있는가?

» 김봉준 일단 제일 많이 들어간 비용은 시간이다. 김&배 로펌에서 이번 소송 방향과 적합한 방법을 찾는데 상당한 공을 들였다. 이전에 이런 방식으로 접근했던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더 오래 걸렸다. 그 밖에도 일어 번역 등 번역 비용 등이 꽤 들어간다. 하지만 일체 외부 지원은 없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한인사회, 더 나아가 한국의 문제로 만들고 싶지 않다. 그래서 처음부터 개인 자격으로 소송을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할 것이다.

» 김용환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것을 모르는 한국 사람은 없지만 구체적으로 외국 사람들에게 이를 설명하려면 자신 있게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 재단은 동해와 독도에 관련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해외 공관들을 활용해 동해·독도 관련 팸플렛과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혹시 우리 재단과 독도 연구소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 김봉준 한국에 독도연구소가 있는지는 상상도 못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한국 유명 가수가 독도 광고를 했다는 것 정도다. 그게 문제다. 기본적인 지식이 너무 없다. 심지어 이번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도 독도는 일본 땅, 동해는 'Sea of Japan'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외국에서 찾을 수 있는 자료 대부분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 준비하던 직원들이 위키피디아에 일본 측 시각이 고스란히 반영된 자료들을 들고 와 어디가 잘못된 건지 지적해 달라고 말하기도 한다. 일단 서류를 작성하는 그 직원들부터 교육하고 설득해야 한다. 자신이 납득할 수 있어야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동북아역사재단 내 독도연구소가 존재하고 있으니 이제 자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 김용환 이번 소송의 결과를 어떻게 전망하는가. 만일 요구한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미진할 경우 대응 방안은?

» 김봉준 이번 소송에서 지면 항소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항소 자체를 민사소송 법정으로 넘겨서 할 수도 있다. 이런 요청을 먼저 하는 것이 절차라서 다 거치고 있는 것이다.